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25.(목) 11:00 < 5.26.(금) 조간 > 배포 2023. 5. 25.(목)

신중동 붐, 오만으로 확산

- 액화천연가스(LNG),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분야 협력 추진

- 두큼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부지 입찰) 등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우리나라의 제5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자 주요 플랜트 건설 시장인 오만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의 오만 내 플랜트 진출 사업 협력 논의를 위한 한-오만 에너지 차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경성 2차관은 오만 모신 빈 하마드 빈 사이드 알 하드라미(Moshin bin Hamad bin Saif Al Hadhrami) 에너지광물부 차관을 만나 한국과 오만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강 차관은 최근 우리 기업이 바르카5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22, GS건설), 마나1 태양광 사업 계약 체결('23, 서부발전) 등 협력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오만이 조만간 선정 예정인 5GW 규모의 그린수소 사업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여 미래 에너지 협력 강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담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첫 방문한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과 5월 25일(목),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었다.

중동 국가와의 협력은 사우디 왕세자 방한('22. 11.),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방문('23. 1.) 등을 계기로 '신중동 붐'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최근 바레인에 이은 오만 고위급의 한국 방문과 카타르 고위급의 방한(5월 말~6월 중순)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한-중동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권현철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김태진 (044-203-57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